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State of Extra Curricula Education for Kindergarteners and Maternal Beliefs Regarding Child Rearing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원생 김보림
부교수 엄정애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Bo Rim, Kim
Associate Professor : Jung Ae, Oh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state of extra curricula education for kindergarteners and maternal beliefs regarding child rearing. This study included 238 mothers who had a child that was either four or five years old and currently attending private kindergarten in Seoul,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222 of the subjects indicated that their children participated early in extra curricula education, and 5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children were involved in four types of extra curricula education. 2) In general,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felt extra curricula activities were more important for instilling values regarding humanity to children of very young ages than for learning and that the environment in which a child is raised is more important than maturity when rearing children. 3) Parental beliefs regarding humanity and learning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actual state of extra curricula education in kindergarteners.

주제어(Key Words):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조기특기교육(extra curricula education for kindergarten), 양육신념(maternal beliefs regarding child rearing)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관심이 되는 분야는 ‘조기특기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걸음마를 갓 시작한 아이들에게 영어는 물론이고 체육, 요가, 심지어 철학까지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 씩 받고 가르치는 학원들이 성업 중이며(이화순, 2007), 18개월 영아들에게 ‘하버드대 학습법’이라는 영재 교육과 원어민 영어 수업, 미술, 음악, 컴퓨터 등을 배우게 하는가 하면(이경선, 2006),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영재 학원에서는 대입에서 논술 비중이 커지면서 일찌감치 사고력을 키우려는 학부모들을 겨냥하여 사회학,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철학 수업까지 개설하는 등(강경지, 2007) 과도한 조기특기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다.

조기특기교육이란 유아의 흥미나 관심과 무관하게 주로 초등학교나 그 이후 교육에 대비한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을 말한다. 즉, 조기특기교육에서 ‘조기’의 의미는 유아의 흥미나 관심과 무관하게 너무 일찍 교육을 한다는 의미이고 ‘특기교육’은 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특별하게 유아에게 특기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텔레비전, 신문 등 대중 매체를 통해서 빈번히 이러한 교육의 과열현상에 대한 보도가 지적되고 있으며 한 시사 프로그램(이광훈, 이혜진, 2002, 1, 5)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조기특기교육의 과도한 분위기에 대하여 이태희(2005)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산업 발전과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교육적 성취를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수단이자 신분 상승의 주요 수단으로 보게 되었고, 자녀를 자신의 대리자아로 인식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신분상승에 대한 열망을 자식에게 기대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임유경(2002)은 이러한 어머니들의 생각이 유아 산업체의 상업적인 요소들과 연결됨으로써 조기특기교육의 과열현상을 낳고 있다고 보았다.

물론 유아 조기특기교육은 일정한 영역의 재능이나 기예를 조기에 발견하여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우남희(2002)의 연구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생각하는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긍정적 효과로는 사교육을 조기에 많이 받은 유아일수록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결과가 있다. 따라서 유아 조기특기 교육은 어떠한 면에서 자녀에게 보다 좋은 교육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기특기교육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적기교육의 의미보다는 발달을 앞당기고 상위 교육기관의 학습에 대해 사전 준비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장영희, 2002)는 것이 문제점이다. 결국 자녀 교육에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들은 조기 교육을 부추기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관련 연구(신의진, 2001; 우남희, 2002; 장영희, 2002; 홍은자, 2001)들은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부정적 영향들과 만연되어있는 무분별한 조기특기교육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조기특기교육이 유아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유아 대상 영리 업체들과 맞물려 유아 조기특기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선적으로 조기특기교육의 부정적 영향에 피해를 입는 것은 유아들이다.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회원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기 교육이 과열되어 아동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전단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2003년 1월 21일 동아일보, p.31). 또한 유아들이 발달적,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조기특기교육을 받음으로써 인지적,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며(우남희, 2002; Burts, Hart, Chaleswort, & Kirk, 1990; Elkind, 1984; O'Brien, 1988; Sorderman, 1984), 과도한 조기특기교육으로 인한 유아 자폐증, 우울증, 학습장애 등 발달 과정의 문제를 겪는 유아들이 생겨나고 있다(신의진, 2001). 부정적 영향의 피해는 유아뿐 아니라 조기특기교육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학부모 스스로도 입게 되어 주변의 과도한 조기 교육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게 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혼란은 사회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였고,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게 되었다(우남희, 홍은자, 이종희, 1992).

조기특기교육 열풍 분위기는 정규 유아교육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규 유아교육기관들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해야 원아모집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정규 활동 이외에 영어, 체육, 미술, 피아노 등 특별 활동의 수를 매년 늘려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유아가 선택적으로 방과 후 특별 활동에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유아가 정규 일과시간에 특별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특별활동은 더 이상 그 원래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특별한 교과활동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그 결과 극단적인 경우 유치원은 여러 종류의 특별활동을 뷔페식으로 제공하는 장소로 전락해 가고 있다(이명조, 정선아, 이정화, 2003)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다.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부정적 영향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기특기교육 열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도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무시하지 못하며 조기특기교육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신, 2002).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나친 조기특기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학원을 배회시키는 이유를 분석한 우남희 외 2인(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육아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기 교육의 과열 현상은 ‘부모의 욕심’이나 ‘교육열’에 의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가족 이기주의, 출세지향 주의 같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및 문화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어떤 측면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지 등의 양육 신념 내용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양육신념은 실제 자녀 양육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특히,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을 옳게 여기며 어떠한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양육 신념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현재 조기특기교육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특기교육의 중요성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조기 특기교육을 시키는 종류를 알아보는 실태 조사(김은아, 1996; 김은정, 1994; 박수진, 2001; 오효선, 2001)가 대부분이며, 최근에 들어 조기 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조기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부모의 인식 또는 조기특기 교육으로 인한 자녀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엄선희, 1999; 이기숙 외 3인, 2002; 홍은자, 2001; 황혜신, 2002)가 시도되고 있는데, 조기특기교육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과 관련이 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국외 연구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부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지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단순히 부모의 양육 행동을 연구하기보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관심을 두어 왔다. 특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는 영역 중의 하나는 ‘신념’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의 신념 → 행동’이라는 개념적인 틀 안에서 부모의 인지적 요인을 행동적 요인과 함께 연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Miller, 1988). 또한 부모의 신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경험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Kelly, 1997; Sigel, 1985)이기에 한국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과열현상은 한국 부모들의 신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조기특기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살펴보고, 조기교육을 시키는 행동의 배경요인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조기특기교육 실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잘못된 유아 조기특기교육으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고, 부모의 과잉 교육열과 불안감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는 어떠하며, 이는 어머니의 학력, 소득,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 양육 신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어머니의 학력, 소득,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유아 조기특기교육 실태의 관계는 어떠한가?
 3-1. 어머니의 양육 신념은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가지 수와 관계가 있는가?
 3-2. 어머니의 양육 신념은 유아 조기특기교육 비용과 관계가 있는가?
 3-3. 어머니의 양육 신념은 유아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강서 지역 소재 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4세, 만5세 원아의 어머니 238명이다. 연구대상 어머니 자녀의 성별은 남아 118명(49.6%), 여아 120명(50.4%)이었으며, 자녀의 연령은 만4세가 128명(53.8%), 만5세가 110명(46.2%)으로 만4세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151명(63.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1~35세가 64명(27.2%), 41~45세가 15명(6.4%), 30세 이하가 5명(2.2%), 45~50세가 3명(0.8%)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162명(68.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졸업이 24명(10.1%), 전문대학 이하가 52명(21.9%)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500만원이상 66명(27.7%), 300~400만원미만 59명(24.8%), 400~500만원미만 55명(23.1%), 200~300만원 51명(21.5%), 200만원 미만이 7명(2.9%)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은 있는 경우가 130명(55.5%)으로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없는 경우가 108명(44.5%)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어머니용 질문지이다.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과 자녀의 조기특기교육 실태를 묻는 문항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신념 측정도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연령과 학력, 월 평균 소득, 어머니의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 유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1) 자녀의 조기특기교육 실태

자녀의 조기특기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문항은 박수진(2001)의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질문지와 이기숙 외 3인(2002)의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연구에 사용되었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보완된 질문지는 유아교육 전문가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완성된 질문지는 총 12문항으로 조기특기교육의 전반적 실태를 묻는 6문항과 종류별 실태를 묻는 5문항으로 구분되어진다.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하위내용으로는 조기 특기교육의 실시 여부,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와 시키지 않는 각각의 이유, 자녀가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가지 수, 교육비용, 전반적인 만족도가 포함되어진다. 종류별 실태는 자녀가 받고 있는 구체적인 조기특기교육의 종류, 종류별 시작 동기와 현재 상태(지속, 그만둠), 지속 또는 중단 이유로 구성되었다.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 신념에 관한 측정 도구는 이원영(1983)의 '자녀 교육관', 김지신(1996)의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그리고 Sigel(1985)의 'Me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 등의 문항에서 선택한 문항을 안지영(2001)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것이다.

부모의 양육 신념 측정도구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인성/학습 성취 강조' 요인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 목표로서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어머니가 자녀의 성격이나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도 격려하고, 사회에서의 성공 뿐 아니라 자녀의 소질을 중시하는 입장인 반면, 학습 성취를 강조하는 입장은 자녀의 학업 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사회에서의 성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본 척도는 7점 척도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나타낸다. 양육 신념의 '인성/학습 성취 강

조' 요인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alpha=.85$ 로 나타났다. 둘째는 '성숙주의/환경주의' 요인으로, 어머니가 자녀 발달에 대해 성숙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환경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척도 역시 7점 척도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성숙주의에 가깝고,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주의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성숙주의/환경주의' 요인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alpha=.73$ 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유아 조기특기교육 실태 질문지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측정도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2007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에 걸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서울 강서 지역의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기특기교육 실태와 양육신념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문항의 이해도와 관련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결과, 불명확하고 의미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문항은 수정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내외로 소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2007년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서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3곳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를 둔 학부모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치원의 기관장에게 협조 여부를 문의한 후, 질문지 280부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직접 방문을 통해 회수하였다. 총 배포된 280부의 질문지 중 256부(회수율 91.4%)가 회수 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답변 기재 등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2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8부(85%)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조기특기교육의 일반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부모의 변인에 따른 조기특기교육 가지 수와 비용 및 만족도는 가지수, 비용, 만족도를 점수화하여 t검증과 일원 변량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부모의 변인에 따른 양육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t검증과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부모의 양육 신념과 조기특기교육 가지수, 비용,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단순 상관 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

조기특기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조기특기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기특기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가 총 238명 중 222명(93.3%)으로 거의 대부분이 조기특기교육을 유아기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와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150명(56.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 이유는 '아이의 소질 개발'이 84명으로 31.8%를 차지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아이의 인성 발달을 위해', '아이의 감성 개발을 위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조기특기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가 각각 5명(31.3%)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에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의 응답은 2명으로 12.5%를 차지했다.

유아 개인 당 조기특기교육 가지 수와 비용,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에게 적계는 1가지에서부터 많게는 10가지의 조기특기교육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에게 4가지의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6명(2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5가지를 시키는 경우가 47명(20.9%)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정규 유아 교육기관 이외에 월별 조기특기교

육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적계는 4만원에서부터 1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출 범위는 11만원~20만원(27.2%)과 21만원~30만원(25.7%)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95

<표 1>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

(중다반응)

이유	N(%)
자녀가 졸라서	13 (.4.9)
주위에서 모두 시키니까	6 (.2.3)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7 (.2.6)
자녀의 남은 시간을 메우기 위해	2 (.8)
아이의 소질 개발을 위해	84 (31.8)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150 (56.8)
기타	2 (.8)
전체	264 (100.0)

<표 2> 조기특기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

이유	N(%)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5 (31.3)
나이가 어려서	3 (18.8)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1 (6.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5 (31.3)
유치원에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 (12.5)
전체	16 (100.0)

<표 3> 유아 개인당 조기특기교육 가지 수, 비용, 전반적인 만족도

항 목	N(%)	항 목	N(%)		
가지수	1가지	14 (6.2)	비 용	10만원 이하	53 (23.9)
	2가지	36 (16.1)		11~20만원이하	60 (27.2)
	3가지	36 (16.1)		21~30만원	57 (25.7)
	4가지	56 (25.0)		31~40만원	28 (12.2)
	5가지	47 (20.9)		41~50만원	16 (7.3)
	6가지	8 (3.6)		50만원 이상	8 (3.7)
	7가지	9 (4.0)		전체	222 (100.0)
	8가지	8 (3.6)	만족도	만족하다	95 (43.0)
	9가지	4 (1.8)		보통이다	125 (56.1)
	10가지	4 (1.8)		불만족하다	2 (.9)
전체	222 (100.0)	전체		222 (100.0)	

〈표 4〉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별 순위

순위	종류	N(%)	순위	종류	N(%)
1	미술	136 (61.2)	5	프뢰벨	59 (26.2)
1	한글	136 (61.2)	6	한자	56 (25.2)
2	수학	134 (60.4)	7	무용	39 (17.6)
3	영어	131 (59.0)	8	수영	38 (17.1)
4	피아노	100 (45.0)	9	과학	6 (2.7)
5	태권도	59 (26.2)	10	바이올린	4 (1.8)

명으로 43%를 나타낸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125명으로 56.1%를 나타냈다.

현재 유아기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별 실태를 종류별 순위, 시작동기, 지속이유, 중단이유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표 8〉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현재 가장 많이 시키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는 미술과 한글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222명 중 61.2%가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수학이 60.4%, 영어가 59.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순위 안에 드는 종류 외에 자녀들에게 시키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로는 검도(3명), 독서 및 논술(2명), 토론(4명), 바둑(4명), 뇌호흡(1명), 종이접기(4명), 오르다(4명), 축구(1명), 동화구연(5명), 리듬체조(1명), 체스(1명), 인라인(2명), 칼라믹스(1명), 레고닥터(5명), 주산(1명), 달크로즈 뮤직(1명), 모래놀이(1명), 자석블록(1명), 프뢰벨 다중지능(1명), 음악MEF(1명), 프리스쿨(1명) 등이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조기특기교육을 시켰던 경험이 있거나 시키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별 시작 동기는 '자녀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시작 동기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학습 및 지능 발달에 관련된 조기특기교육(영어, 한글, 한자, 수학, 과학, 영재교육)의 시작 동기는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할 수 밖에 없으므로'가 2위를 차지한 반면, 예체능에 관련된 조기특기교육(미술, 피아노, 바이올린, 무용, 태권도, 수영)의 시작 동기는 '자녀가 원하므로'의 비율이 2위를 차지하였다. 태권도의 경우 기타 의견으로는 '리더쉽을 키워주기 위해', '정신 수양을 위해'의 의견이 있었다(표 5 참조).

조기특기교육을 현재 지속하고 있거나 중단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거의 모든 종류의 조기특기교육 지속 이유는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무용과 바이올린, 프뢰벨은 물은 '자녀가 좋아하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영어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니까'라는 응답이 있었고, 한자에서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있었다(표 6 참조). 반면에 조기특기교육 중단 이유는 예체능과 관련한 조기특기교육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학습 및 지능 발달과 관련된 조기특기교육의 경우에는 자녀가 흥미가 없어서 그 만둔 이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프뢰벨은 물은 '충분히 배워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수영을 중단한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가 동행해야 하는데 이사나 동생의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부모가 동행하지 못하여

〈표 5〉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별 시작 동기

종류	동기	자녀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가 원하므로	자녀가 소질이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할 수 밖에 없으므로	N(%)
미술	89 (65.4)	39 (28.8)	4 (0.9)	4 (0.9)	136 (100)	
피아노	61 (61.0)	30 (30.0)	1 (1.0)	8 (8.0)	100 (100)	
바이올린	3 (75.0)	1 (25.0)	0 (0.0)	0 (0.0)	4 (100)	
무용	25 (64.8)	14 (36.2)	0 (0.0)	0 (0.0)	39 (100)	
태권도	30 (59.3)	20 (33.9)	2 (3.4)	2 (3.4)	59 (100)	
수영	29 (76.3)	8 (21.1)	1 (2.6)	0 (0.0)	38 (100)	
영어	80 (61.0)	10 (7.6)	1 (0.8)	40 (30.6)	131 (100)	
한글	97 (71.3)	9 (6.6)	0 (0.0)	30 (22.1)	136 (100)	
한자	38 (67.9)	11 (19.6)	1 (1.8)	6 (10.7)	56 (100)	
수학	93 (69.4)	8 (6.0)	0 (0.0)	33 (24.6)	134 (100)	
과학	3 (50.0)	3 (50.0)	0 (0.0)	0 (0.0)	6 (100)	
프뢰벨	52 (88.1)	5 (8.5)	2 (3.4)	0 (0.0)	59 (100)	

〈표 6〉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별 지속 이유

N(%)

종 류 \ 지속이유	자녀 발달에 도움이 되서	자녀가 좋아하므로	자녀가 재능이 있어 전문가로 키우려고	그동안 배운 것이 아까워서	기 타	전 체
미술	49 (50.0)	46 (46.9)	3 (3.1)	0 (0.0)	0 (0.0)	98 (100)
피아노	54 (59.8)	31 (33.6)	2 (2.2)	3 (3.3)	1 (1.1)	91 (100)
바이올린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
무용	7 (35.0)	12 (60.0)	1 (5.0)	0 (0.0)	0 (0.0)	20 (100)
태권도	25 (51.0)	24 (49.0)	0 (0.0)	0 (0.0)	0 (0.0)	49 (100)
수영	14 (73.7)	5 (26.3)	0 (0.0)	0 (0.0)	0 (0.0)	19 (100)
영어	93 (78.2)	22 (18.5)	0 (0.0)	3 (2.5)	1 (0.8)	119 (100)
한글	101 (86.3)	16 (13.7)	0 (0.0)	0 (0.0)	0 (0)	117 (100)
한자	35 (68.6)	15 (29.4)	0 (0.0)	1 (2.0)	0 (0)	51 (100)
수학	109 (84.4)	18 (14.0)	0 (0.0)	1 (1.6)	0 (0)	129 (100)
과학	3 (100.0)	0 (0.0)	0 (0.0)	0 (0.0)	0 (0)	3 (100)
프뢰벨	11 (42.3)	15 (57.7)	0 (0.0)	0 (0.0)	0 (0)	26 (100)

〈표 7〉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별 중단 이유

N(%)

종 류 \ 중단이유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자녀의 흥미가 없어서	별 효과가 없어서	교육방법과 내용이 부적절해서	자녀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배워서	기 타	전 체
미술	2 (5.1)	16 (41.0)	5 (12.8)	2 (5.1)	9 (25.6)	4 (10.4)	0 (0)	38 (100)
피아노	6 (66.7)	3 (33.3)	0 (0)	0 (0)	0 (0)	0 (0)	0 (0)	9 (100)
바이올린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무용	7 (36.8)	2 (10.5)	3 (15.8)	5 (26.4)	2 (10.5)	0 (0)	0 (0)	19 (100)
태권도	5 (50.0)	1 (10.0)	1 (10.0)	3 (30.0)	0 (0)	0 (0)	0 (0)	10 (100)
수영	0 (0)	6 (31.6)	0 (0)	0 (0)	5 (26.3)	1 (5.3)	7 (36.8)	19 (100)
영어	1 (8.3)	6 (50.0)	2 (16.7)	3 (25.0)	0 (0)	0 (0)	0 (0)	12 (100)
한글	3 (15.8)	7 (36.8)	1 (5.3)	0 (0)	0 (0)	8 (42.1)	0 (0)	19 (100)
한자	0 (0)	1 (20.0)	0 (0)	2 (40.0)	2 (40.0)	0 (0)	0 (0)	5 (100)
수학	0 (0)	2 (40.0)	0 (0)	1 (20.0)	0 (0)	2 (40.0)	0 (0)	5 (100)
과학	0 (0)	0 (0)	1 (33.3)	0 (0)	2 (66.7)	0 (0)	0 (0)	3 (100)
프뢰벨	0 (0)	1 (3.0)	2 (6.1)	1 (3.0)	3 (9.1)	26 (78.8)	0 (0)	33 (100)

중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표 7 참조).

유아 조기특기교육 실태가 어머니의 학력, 소득,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기특기교육 가지 수, 비용, 전반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시키는 조기특기교육 가지 수는 평균 3.84개, 비용은 24만6천원, 전반적 만족도는 3점 만점에 1.58점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의하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비용, 가지 수,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는 가지 수와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대졸($M=3.99$)이나 전문대졸 이하($M=3.98$)의 학력을 소지한 어머니들이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어머니들($M=2.78$)보다 조기특기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에는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의 만족도 점수는 1.83, 대졸 학력은 1.56, 대학원졸 이상은 1.37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에 가까운 것이기에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소득에 따른 비용, 가지 수, 전반적인 만족도 차이는 가지 수와 비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기특기교

〈표 8〉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조기특기교육 실태의 차이

M(SD)

실태	전문대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 이상	F
가지 수	3.98 (1.47) ^a	3.99 (1.69) ^a	2.78 (1.11) ^b	3.62**
비용	24.06 (7.54)	25.17 (13.37)	25.63 (22.64)	.49
전반적인 만족도	1.83 (.41) ^a	1.56 (.52) ^b	1.37 (.50) ^c	2.44*

*p<.05 **p<.01

〈표 9〉 가정 소득에 따른 조기특기교육의 실태 차이

M(SD)

실태	200만원 이하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F
가지 수	2.20 (1.48) ^a	3.40 (1.36) ^b	4.02 (1.63) ^b	3.71 (1.75) ^b	4.24 (1.76) ^c	3.08**
비용	17.00 (15.36) ^a	19.80 (9.36) ^a	25.80 (7.03) ^b	24.20 (12.77) ^b	28.30 (14.43) ^c	2.91*
전반적인 만족도	1.40 (.55)	1.63 (.53)	1.62 (.53)	1.62 (.49)	1.49 (.50)	.83

*p<.05 **p<.01

육 가지 수의 경우, 소득이 200만원이하인 집단의 평균이 2.20으로 가장 적었으며, 500만원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4.24로 가장 많았다. 비용은 소득이 200만원이하($M=17.00$) 이거나 200~300만원미만($M=19.80$)인 집단이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반면, 500만원이상의 집단($M=28.30$)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어머니의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에 따른 비용, 가지 수, 전반적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참조). 조기특기교육가지 수와 비용은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 집단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어머니 집단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이 없는 어머니의 집단이 평균 만족도 1.66으로 사교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 집단의 평균 만족도 1.52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이 없는 어머니 집단이 사교육 경험 이 있는 어머니 집단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 양육 신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인성/지적 성취 강조 신념은 1~7점 범위 중 최저 1.00에서 최고 6.67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2.7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대체로 자녀들에 대해 지적 성취나 학교 성적을 강조하기보다 인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신념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성숙/환경주의 신념은 최저 1.11에서 최고 7.00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4.40으로 나타나 대체로 자녀의 발달에 대해 부모나 외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환경주의 신념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양육 신념이 학력, 소득 수준,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소득 수준,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양육 신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인성/학습 성취 강조 신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3$, $p<.05$). 전문대졸 이하 어머니의 인성/학습 성취 강조 신념의 평균 점수는 3.21로 대졸 이상 어머니의 평균 점수인 2.67과 대학원졸 이상 어머니의 평균 점수인 2.62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학력이

〈표 10〉 어머니의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조기특기 교육의 실태 차이

M(SD)

실태	학창시설 사교육경험 있음	학창시설 사교육경험 없음	t
가지 수	4.07 (1.70)	3.53 (1.62)	2.28*
비용	26.56 (15.30)	22.12 (12.18)	2.33*
전반적인 만족도	1.52 (.52)	1.66 (.50)	-2.02*

*p<.05

〈표 11〉 어머니 양육 신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최저값과 최고값

변인	M(SD)	최저값	최고값	점수범위
인성/학습 성취 강조 신념 ¹⁾	2.70 (.98)	1.00	6.67	1~7
성숙/환경주의 신념 ²⁾	4.40 (.99)	1.11	7.00	1~7

1)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성취 강조 신념,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 강조 신념을 나타냄

2)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주의 신념, 점수가 낮을수록 성숙주의 신념을 나타냄.

〈표 12〉 어머니의 학력, 소득, 학창시절 사교육 유무에 따른 양육 신념의 차이 M(SD)

어머니의 일반적 변인		인성/학습 성취 강조 신념	성숙/환경주의 신념	M(SD)
학력	전문대졸이하	3.21 (1.08) ^a	4.78 (1.05)	
	대졸	2.67 (1.01) ^b	4.46 (1.01)	
	대학원졸 이상	2.62 (.69) ^b	4.01 (.70)	
<i>F</i>		2.30*	2.39	
소득	200미만	2.80 (1.17)	4.41 (.75)	
	200~300	2.61 (.93)	4.57 (1.27)	
	300~400	2.80 (1.18)	4.61 (1.00)	
	400~500	2.50 (.80)	4.22 (.88)	
	500이상	2.69 (.88)	4.67 (.78)	
<i>F</i>		.75	1.75	
학창시절 사교육 유무	있음	2.67 (1.00)	4.47 (1.02)	
	없음	2.63 (.96)	4.35 (.95)	
<i>t</i>		.31	.84	

**p*<.05

^{a, b} Duncu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차이가 있는 집단끼리는 다른 문자로 표시함

높은 어머니에 비해 좀 더 자녀 발달 목표를 학습 성취에 둔다고 볼 수 있다.

3.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기특기교육의 실태를 가지 수, 비용, 전반적인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13, 표 14 참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조기특기교육의 가지 수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학습 및 지능 관련 가지 수는 인성/학습 강조 신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났는데($r=.51$, $p<.05$), 이는 어머니의 양육 신념이 학습에 가까운 신념을 가질수록 학습 및 지능에 관련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가지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환경의 신념과 조기특기교육의 가지 수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3 참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자녀가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 비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관계는 조기특기교육 비용($r=.16$, $p<.05$)과 전반적인 만족도($r=-.14$, $p<.05$) 모두 인성/학습 강조 신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들의 인성/학습 강조 신념 중 학습을 강조하는 신념이 클수록 지출하고 있는 조기특기교육 비용이 높았으며,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성숙/환경 신념은 조기특기교육 비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3〉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조기특기교육 가지 수의 관계

양육 신념	예능관련 가지수	체능관련 가지수	학습 및 지능 관련 가지수	전 체 가지수
인성/학습 성취 강조 신념	-.28	-.13	.51**	-.00
성숙/환경주의 신념	-.10	-.10	.12	-.18

p*<.05 *p*<.01

〈표 14〉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조기특기교육 비용 및 만족도와의 관계

양육 신념	조기특기교육비용	전반적인 만족도
인성/학습 성취 강조 신념	.16*	.14*
성숙/환경주의 신념	.02	.01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조기특기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을 살펴보고, 조기교육을 시키는 행동의 배경요인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조기특기교육 실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5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기 자녀에게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기 특기교육을 시키는 어머니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으며, 조기특기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원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유치원에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는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한글 교육을 비롯한 전인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과 신뢰가 낮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김영실, 1998; 박정옥, 2001; 이주아, 2004)에서 부모들이 유아교육 기관에 대하여 학급당 유아가 너무 많다는 데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은 개인 혹은 소수 정예 교육으로 흐르고 있으며(이명조 외 2인, 2003)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조기특기교육 교사와 부모간의 상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

규 유아교육기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개별화 교육을 위하여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고, 유아를 위한 적기교육의 중요성을 부모교육을 통해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어머니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교육과정과 인적 환경 이외에도 특별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한다는 박정옥(2001)의 연구결과를 통해볼 때, 기관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 개인 당 받는 조기특기교육 가지 수는 평균 3.84개로 4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 4세 유아가 1가지를 받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5세 유아는 2가지를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는 이기숙 외 3인 (2002)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 표집과정상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몇 년 사이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조기특기 교육가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기특기교육 비용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조기특기교육 비용의 평균은 24만 6천원으로 1997년 12만 6천원(신진, 1997), 1999년 16만 5천원(곽수란, 이유미, 1999), 2001년 23만원(박수진, 2001)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보통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기 특기교육의 확산에 대하여 유아 스트레스, 우울증, 학습장애, 가정 경제의 혼란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조기특기교육이 확산되는 이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시키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는 미술, 한글, 수학, 영어였으나, 선행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독서 및 논술, 토론 등의 조기특기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입학 제도에서 논술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조기·특기 교육을 시작한 동기와 지속이유는 자녀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자녀 교육의 실패로 본다는 현주(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아대상 조기 교육 확산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조기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선행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우남희, 2005)를 지지한다.

이러한 조기특기교육 실태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소득,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졸이나 전문대 졸업 어머니들이 대학원졸 이상의 어머니들에 비해 조기특기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낮았다.

가정소득은 500만원이상인 경우 조기특기교육을 가장 많이 시키고 있었으며 비용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창시절 경험 유무는 어머니가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사교육 경험이 없는 어머니보다 조기특기교육 가지 수와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진(2001)의 조기특기교육 실태 조사에서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조기특기교육 비용이 많아졌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어머니의 학창시절 사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조기특기교육 실태의 차이는 아동기 경험이 자녀의 양육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이진선, 2006; 전현진, 1997)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대체로 자녀들에 대해 지적 성취나 학교 성적을 강조하기보다 인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양육 신념의 경향을 나타냈고, 대체로 자녀의 발달에 대해 부모나 외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환경주의 신념 경향을 보였다. 성숙주의 신념에 비해 환경주의 신념 경향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대해 자녀의 유전적 요인과 같은 내적인 요인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중시하는 환경주의 경향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결과(안지영, 2001)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서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중요시 여기며, 이러한 역할 중 하나로서 조기특기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무조건 주위에서 하는 것을 모방하여 무분별하게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기보다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최적의 환경이 무엇인지 를 알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 신념은 학력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낮은 어머니가 높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 발달 목표를 좀 더 학습 성취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조기특기교육의 원인이 자녀를 자신의 대리 자아로 인식하는 어머니들이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을 자식에게 기대 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이태희(2005)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 위주 또는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조기특기교육 실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성/학습 성취 강조 신념과 자녀의 조기특기 교육 가지 수, 비용 및 만족도는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신념이 학습에 가까운 신념일수록 학습 및 지능과 관련된 조기·특기 교육을 시키는 가지 수와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신념체계는 부모의 행동과 관련이 있

다는 선행연구(전경숙, 1989; Miller, 1988; Okagaki & Divecha, 1993)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어머니들이 학습에 치우친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에게 조기특기교육을 많이 시키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므로 더욱 새로운 교육방법과 종류를 찾으려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의 열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학습보다는 인성발달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기특기 교육의 현황과 어머니의 양육 신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강서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실태라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질문지 방식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진솔한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신념과 조기특기교육 실태와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으나, 신념이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 증명을 통한 영향력을 검증해볼 수 있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의 신념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사회적 가치가 부모의 자녀 양육 목표와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과열된 조기교육 현상은 부모 개개인의 의식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교육열'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으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경지(2007). 조기교육 광풍. <http://news.media.daum.net>에서 2007년 5월13일 인출
- 곽수란, 이유미(1999). 사교육 교육성에 관한 연구. 나주 대학 논문집, 4, 161-172.
- 김영실(1998).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1996). 유아의 조기영어 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1994). 조기교육 현장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기교육 담당주체를 중심으로 본 문화기술지. 연

- 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옥(200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의진(2001). 과잉조기학습이 어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어린이 교육협회 2001년 춘계회원 연수 자료집, 25-29.
- 신진(1997). 사교육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 여의도정책논단, 14, 106-116.
-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기교육(2003, 1, 21). 동아일보, p.31.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효선(2001). 취학 전 유아의 조기교육 실태조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2002). 한국의 조기교육, 그 혀와 실. 한국아동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24.
- 우남희(2005). 우리나라의 유아대상 조기교육 확산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 생활과학연구, 10, 24-41.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2). 사설학원 및 가정 중심의 조기 특기/과외교육 실태연구. 한국아동학회 1992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조기교육의 현황과 전망, 63-80.
- 이경선(2006). 두 돌 배기가 월 180만원 고액 과외. <http://news.media.daum.net>에서 2007년 4월 20일 인출.
- 이광훈, 이해진(2002, 1, 5). 무엇이 엄마를 불안하게 하는가? - 긴급점검, 조기교육의 실태. 서울: SBS프로덕션. 2002년 1월 5일 방영.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명조, 정선아, 이정화(2003). 한국 유아의 조기교육.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 보고서, 제87집.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아(1994).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어머니의 선택요인 및

-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진선(2006).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희(2005). 부모의 양육 신념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순(2007). 조기교육 이대로 좋은가. <http://news.media.daum.net>에서 2007년 4월 20일 인출.
- 임유경(2002). 영아기 조기특기교육의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희(2002). 조기특기교육 –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것인가? *교육개발*, 133, 24–29.
- 전경숙(1995). 부모의 신념과 아동 발달에 관한 이론적 모형의 탐색. 동아대학교 유아교육논집, 5, 15–45.
- 전현진(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 만족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현 주(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3-06.
- 홍은자(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황혜신(2002). 조기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한국아동학회 2002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 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129–148.
- Burts, D. C., Hart, C., Chaleswort, C. H., & Kirk, A. (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struction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07-423.
- Elkind, D. (1984).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이들. 이현순, 심성경, 원영미(공역). 서울: 창지사.
- Kelly, B. (1997). Children, family and nursery provisio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08, 115-136.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O'Brien, S. J. (1988). Childhood stress: A creeping phenomenon. *Childhood Education*, 64(2), 156-166.
- Okagaki, L., & Divecha, D. J. (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 In T. Luster & L. Okagaki(Ed.),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35-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pp.345-371). Hills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olderman, A. K. (1984). Formal education for four-year-old? That depends. *Young Children*, 40, 12-13.

(2007년 6월 29일 접수, 2007년 7월 30일 채택)